

# 전주매일

금영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음 5월 9일) 제20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검찰, 경찰수사 지휘권 폐지... 하지만

# '보완수사요구권' 으로 견제

정부가 검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했다.

하지만 입법 및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안 제출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진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이는 검·경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된다.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줌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검찰에게는 사법통제 역할에 무게를 두게끔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의 수사만 가능하고, 공소제기 여부 및 공소유지 권한만을 갖게 한다. 검찰 수사력이 일반송치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되게끔 한 것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1차 수사가 가능하다.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과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사건,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등이 그 대상이다.

특수사건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경찰이 영장 등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그래픽=뉴시스제공〉

송치 전 사건 수사지휘 불가 견제기능 다각도 마련

부패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검찰 1차 수사

법조계 "검찰, 핵심 수사권 지키고 실리 챙겼다" 평가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이 우선권을 갖게 한다.

또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 위 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심된다면 기록 송부와 시정 조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진다. 만약 이 같은 조치에

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를 요구, 수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 양 기관 사이 수사권한을 큰 틀에서 규정해 제시했을 뿐 아직 명문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안 제출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는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수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이 130석으로 원내 1당이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안에 불만이 큰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 조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설득에 나설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권은 단순히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으로 형사 절차의 사법적 정의와 인권보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절차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며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등의 내용은 아예 빠져 있거나 경찰 스스로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라는 등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사능력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국민의 인권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초안보다 훨씬 후퇴한 수준이다. 절대 만족할 수 없다"며 "검찰에 주어진 조정안의 견제 기능이 지금보다 더한 감동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효철 기자



'든든한 지방정부' 전북 현안 간담회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주최로 열린 '든든한 지방정부' 성공을 위한 6.13지방선거 당선자 전북현안 간담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춘석 사무총장, 김윤덕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당선자, 지역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블루오션 메가이벤트 발굴 추진

# 도, '2022 아·태 마스터스' 유치 도전

세계 50개국 1만명 참가 목표 경기장 신축·사후 활용 문제 예산 낭비 엘리트 대회와 달리 전북지역 여건에 가장 잘 맞고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효과

전북도가 지난해 2023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에 이어 또 하나의 목표에 도전한다.

전라북도지사는 21일, 중장년층의 아시아 태평양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제2회 2022년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터스 대회는 평균 참가연령이 49세로 기존 엘리트체육 중심의 국제대회 유치에서 벗어나 생활체육 분야 국제대회를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유치에 도전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도가 2022 아태마스터스 대회를 유

치 목표로 삼은 이유는 이 대회가 많은 장점을 가진 블루오션 국제대회이기 때문이다.

마스터스 대회는 월드컵대회와 대륙별 대회로 나누어 개최되고 있다. 1985년 제1회 캐나다 토론토에서 월드컵대회로 시작하여 지난해 뉴질랜드 대회가 9 회째이다. 대륙별로는 유럽, 팬아메리카,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있다.

전북도는 2022 아태마스터스 대회규모를 세계 약 50개국 1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4~5월경 약 9일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 체육회, 문체부, 기재부 심의 등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마스터스 협회에 대회 유치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1년여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최종 유치 결정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지사는 "엘리트 대회는 국제 공인 경기장 신축과 사후 활용이라는 문제로 항상 예산 낭비의 지적이 있어 왔는데 반해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전북 여건에 가장 잘 맞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숨겨진 보물같은 대회라고 본다"며 "전북도가 그간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발굴한 알짜배기 대회로 앞으로 국내 관련절차를 준수하는 동시에 국제마스터스 협회에 전북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여 전북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여 최종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불어 "최종 유치 결정이 되기까지는 생활체육에 대한 범 도민적인 관심이 더욱 더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범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진성 기자

※도·일요일 신문 쉽니다.

##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내달 12일 팡파르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인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다음달 12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다. 21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태권도로 하나되는 세계인'이란 슬로건을 내건 제12

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엑스포에는 40개국 약 7500명의 선수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태권도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정신을 느끼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성 기자

## 매일 INDEX

3면 - 대법 "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안돼"

9면 - 초여름의 영화축제... 무주 산골영화제 '막 오르다'

태권도촌에서 온 가족이 함께 태권도 체험과 관람으로 힐링하고 행복해지세요.

태권도원 www.tkdwon.kr

T1경기장, 태권도체험, 모노레일,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시범공연단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TPF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5554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T. 063-320-0114